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9월 13일(금)
..(음력 8월15일)..

Пятница
13 сентября 2019г.
№ 36(11685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2일(목) 오후 2시 사할린주 정부 대강당에서 많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알레리 이고레비츠 리마렌코 주지사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사진: 주정부 홍보실 제공)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당선

지난 11일(수)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회의에는 9월 8일 치른 주지사 선거의 최종 결과를 승인했다. 최종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 37.4%가 투표한 가운데, 주지사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득표율56.14%, 78954득표)이 당선되었다. 그는 유즈노쿠릴스크 구역에서 가장 많은 표(득표율88.13%, 투표율 88.2%)를 얻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가장 적은 표(득표율47.91%, 투표율 35%)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주지사 선거에는 후보 5명이 출마했는데 리마렌코 대행 외에 전체 득표율은 러시아 공산당 소속인 알렉세이 코르니엔코가 24.2%, 러시아 자유민주당의 드미트리 플레예르가 7.6%, <컴му니스트 러시아(러시아 공산당원들)>당의 드미트리 젠킨이 5.91%, <사회 정의 공산당>의 드미트리 코체르긴이 2.25%였다.

12일(목) 오후 2시 사할린주 정부 대강당에서 많은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본사 기자)

단신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날의 주요 행사 시공원에서 진행

9월 1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가 137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축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해 주요 행사들은 문화와 휴식의 공간 가가린 시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기념 행사는 오전 11시 <코스모스>경기장에서 시작해 대규모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제별 행사장들은 12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되며 시민들은 예술단의 공연, 문화 및 스포츠 행사, 음악분수 개막식, 시장배(컵) 테니스대회, 오락 놀이 등등이 기다린다.

공원 외에도 여러 행사들이 개최된다.

저녁 8시에는 승리(포베다)광장에서는 저녁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의 인기 스타 지마 빌란 가수과 투레츠키 합창단의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도시의 날 행사는 불꽃놀이로 마무리한다.

"사할린 한인"전시회 개최

2019년 9월 14일(토) 17시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 한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소장품들 중 사할린 한인의 역사, 생활양식, 전통, 관습 및 사회 활동의 역사를 반영한 실질적 의미가 있는 물품들이 전시된다.

또한 방문객들은 새고려신문사, 사할린주 한인협회, 사할린한국교육원,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소속 우리 말방송의 문서들과 사진들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관습과 명절, 전통 놀이에 대한 영화를 전시장에서 상영하고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10월 15일까지다.

사할린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진행

9월 8일 사할린에서 주지사 선거를 포함해 네벨스크·노글리 구역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회의 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노글리 구역에서는 이번에 제7기 지방 의회 의원 선거가 있었다. 현재 의원은 16명으로, 6명이 3개의 선거구에서 당선되었고, 나머지는 비례 투표로 선출되었다.

예비결과에 따르면, 첫 선거구에서는 노글리구역 가스전기 발전소의 화학공학자인 이리나 콤폴로바(공산당 당원, 득표-438)와 연금자인 유리 틀리노브(공산당, 득표-38)가 당선되었다.

제 2선거구에서는 노글리 유청소년 스포츠학교 교장인 에두아르트 알료힌(<예지나야 러시아당>소속)과 <즈나냐 트루다(노동의 깃발)>신문사의 부사장인 마리나 와실리에와(공산당 소속)가 당선되었다. 이들은 각각 545표와 480표를 얻었다.

제3 선거구에서 394표를 다득한 <밀콕스키 익스프레스>의 역학 전문가이자 예지나야 러시아당원인 안드레이 쿠찌와 무소속의 연금 수급자로서 제 6기 의원인 올가 단첸코가 36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정당 투표에 득표율은 <예지나야 러시아당>30.90%(1170표), <러시아 연방 공산당>은 29.40%, 3위로는 <스프라웨들리야 러시아(러시아 정의당)> 11.91% 득표했다. <러시아 공산주의자당>은 10.27%, <러시아 자유민주당>은 6.81%, <조국(로지나)>은 5.39%를 얻었다.

사할린주 네벨스크구역에서는 두 개 선거구에서 네 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당선되었고, 나머지 11명은 비례 투표로 선출했다.

첫 2인 선거구 대결에서 무소속 후보자 블라디미르 박이 압승(득표율47.4%, 2396표 중 1155표 득표)을 거두었다. 네벨스크의 전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2017년에 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 공석에는 무소속 출마, <고르낙-1>회사의 대표 올리아 리바첸코가 27%(668표)를 득표했다.

제2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는 30.9%(2605표중 862표 득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무소속의 <네벨스키 아그로스나브(농산물 공급)>농산업체 대표이사 강 제니스다. 2위는 27%(775표)의 고르

노자워드스크의 <로드니초크>유치원의 원장 블라디미르 민쯔-코플레노크(무소속)가 당선됐다.

정당 득표율 1위는 <예지나야 러시아>당(유효투표 4926표 중 1954표로 37.2%를), 2위는 <러시아 연방 공산당>(25.4%), 3위는 <러시아 자유민주당>(14.03%), 4위는 <러시아 정의당>(7.1%), 5위는 <야블로코당>(1.8%)이다.

네벨스크 구역 선거의 투표율은 약 47%를 기록했으며, 11,100명의 유권자 중 5,200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지난 9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회 제 6기 의원(총 25명)을 선출했는데 주 중앙도시에서는 비례 투표 없이 후보들은 각 1석의 25개 선거구에 출마하여 경쟁을 벌였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선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예지나야 러시아당>이 15석, 러시아 연방 공산당이 2석, <러시아 정의당>은2석, 무소속 출마자가 6석을 차지했다.

제 1선거구에서는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인 <모네론>회사 대표이사 올레그 로가초브 현 시두마 의원(879표 획득)이 이겼다. 투표자는 약 2,000명으로 그 중 100표 이상은 무효표가 되어 모든 선거구에서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7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2019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82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한국교육원: 9월 개강, 10월 교사연수·K-팝축제·김치축제·태권도 대회 등 개최

9월 초에 러시아에서 새 학년도가 시작한다.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도 9월 6일 개강식을 가졌다. 본사 배순신 기사는 올해 교육원 교육기획과 행사를 개최한 김주환 교육원장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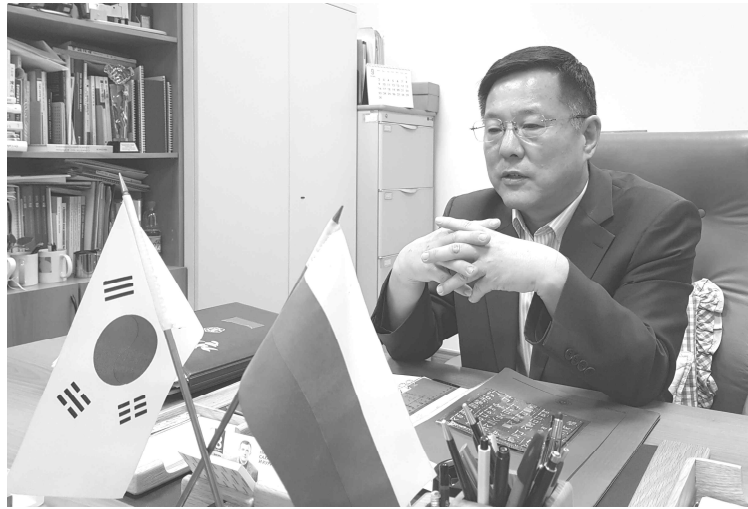
- 수업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기 수강생 수는 어떻게 되고 어떤 수업 과정이 진행되는지요?

- 이번에 17개 교육과정에서 약 25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최소연 학생은 14살이고 최고령 수강생은 70세가 넘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으로는 입문반(1, 2 단계), 초급반(1,2 단계), 중급반이 있고 문화반, 요리교실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 강사는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교수, 학교 한국어 교사 등입니다.

또한 올해도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경희대학교가 실시하는 예비교원 실습을 이미 사할린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대학생·대학원생들인 예비교원들이 교육원 내 두 달간 한국어 초보자들을 위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 이번 여름에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사할린 학생들을 위한 한국 언어·문화 연수 (여름 캠프)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6일 14박 15일 연수프로그램으로 학생 25명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교육원 선생님, 지방 한글학교 선생님, 한국어 채택학교 한국어 교사 등 추천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습니다. 학



생들은 6학년부터 10학년까지였어요. 그리고 학생 중 새고려신문사 70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우수 수상자가 부상으로 이 연수를 받게 된 학생도 있었잖아요. 김현아 학생은 거기에서도 1등했어요. 누구보다 잘 했습니다.

- 우리 콩쿠르에서 우수한 학생이 연수에서도 우수했더니 정말 상을 잘 췌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의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 학생들은 평일에는 오전에 주로 한국어 수업이 있었고 오후에는 문화체험, 팀 활동 등등이 있었고 주말에는 탐방 활동을 했습니다. 그저 탐방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탐방한 곳에 대해 자료를 만들어 발표도 했죠.

-이번에 사할린 학생들 25명이 갔는데, 반응은 어땠는지요?

-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좋아했어요. 그때 경희대학 언어교육원에는 일본 학생들도 와 있었고 우리 러시아 학생들도 와 있었는데 사할린 학생들이 착하게 아무 문제 없이 열심히 잘했다고 경희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하실 계획이신지요?

- 경희대학교 측에서는 우리가 그런 교육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연수비는 사할린 한국 교육원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매년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확정적으로 배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올릴

때 이것에 관한 예산은 올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확정될지는 내년 2~3월 경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여는 연수 프로그램은 사할린 측에서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경희대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요?

- 여기서 제안을 한거죠. 사실 한국 언어와 문화 연수프로그램은 여러 대학이 하는데 경희대학교가 이걸 제일 우수하게 잘 하는 대학이라서, 경희대학교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쪽에서 예비교원 실습 사업도 시행하고 있고 사할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교원 실습 프로그램 책임자인 박동호 경희대 교수는 10월에 사할린에 오십니다. 박동호 교수님께서 이곳 한국어 교사 연수에 참가하시고 강의를 하실 예정입니다. 연수는 10월 9일과 10일 사할린 국립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할린의 전체 한국어 선생님들 학교나 한글학교나 이런 곳의 한국어 선생님들은 연수에 참가할 것입니다. 인나 코르네예와 사할린국립대 교수가 회장이신 한국어 교사협회에서 연수를 주최합니다. 동북아 청소년협의회(이사장 김연고)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잖아요. 특별히 계획하신 행사가 있나요?
- 올해도 평일에는 잘 모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 학교, 동양김나지아나, 제2김나지아 등, 각 한글학교가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각 학교별 행사 상품을 교육원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10월 11일에는 사할린 국립대에서 K-팝 축제를 하고, 12일에는 교육원에서 김치축제, 13일에는 태권도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모든 행사도 동북아청소년협의회에서 후원합니다.

연말까지 행사를 하고 12월 20일 교육원에서 1학기 종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요?

- 사랑하는 새고려신문 독자 여러분!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태풍과 늦장마가 극성을 부려도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황금빛으로 영글어가는 저 들판처럼 탐스러이 익어가는

저 과실들처럼 모든 걱정 근심 내려 놓으시고, 그동안 흘리신 땀방울의 수확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따뜻한 온정으로 가득찬 푸근한 고향길 되시고,

온 가족과 이웃 모두 함께 사랑과 풍성함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 네, 원장님도 즐거운 추석 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모저모

<크로스 나치(국민 마라톤)>의 등록 시작

국민 마라톤 주최 측은 사할린의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스포츠 행사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국민 마라톤>전 러시아 마라톤의 날이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다 광장에서 9월 21에 개최된다. 마라톤 경주자들이 4km,6km,8km,12km 코스에서 자신의 실력을 겨뤄볼 기회이다. 이 행사의 우승자와 수상자에게는 행사 후원사로부터 우승컵과 메달, 선물과 더불어 유익한 문화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 마라톤은 포베다 광장에서부터 시작해 고르기 거리를 지나 발니츠나야 거리까지의 왕복 코스다.

작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2천5백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지구력 시험에 지원했고 올해는 약 3천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공식 사이트에서 등록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팀 참가 양식 포함) 이메일 주소 kn-16@bk.ru.를 통해 접수한다. 등록을 마친 참가자는 의사 진단서 제출 시 9월 12일-20일 10시 - 17시까지(점심시간 없음) 부착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슴 부착 번호표 배포는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이뤄진다고 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Открыта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Кросс нац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глашаю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ддержать спортивное событие.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состоится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21 сентября 2019 г. Любители бега смогут помериться силами на дистанциях 4, 6, 8 и 12 км.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ёров ждут кубки, медали и подарки от спонс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а также насыщенная культурная программа.

В этот раз маршрут пройдёт по улице Горького — от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до улицы Больничной и обрат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верить себя на выносливость вышло около 2,5 тысячи горожан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В этот раз участников ожидается порядка 3000 человек.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регистрация открыта на сайте. Также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том числе командные)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kn-16@bk.ru.

Участники, прошедшие регистрацию,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агрудный номер с 12 по 20 сентября с 10:00 до 17:00 (без перерыва на обед) при предъявлении медицинского допуска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Выдача будет происходить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ул. Горького 7, тел. 24-20-08),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주 가장 큰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지역 3순위에 올라

사할린주가 일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주택 담보 대출 규모에 따라 러시아 연방 지역 상위 3위에 올랐다.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서 은행의 담보 대출액은 평균 290만 루블리에 해당했다. 모스크바는 상위에서 머물러 평균 담보 대출액을 460만 루블리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평균 320만 루블리)

러시아 통계청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연구 결과를 <노우스찌>통신에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할린주를 제외한 상위 10위 안에 극동 지역 3 곳이 올라왔다. 추코트카 자치구가 4위,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5위,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구는 6위, 야쿠치야가 7위로 야쿠치야는 평균 담보 대출로 270만 루블리가 승인되었다. 프리모리예 변경은 10위로 대출액의 한도는 240만 루블리이다. 사할린주 은행의 담보 대출 한도액이 상당한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대중성은 최상위권과 멀다. 사할린주의 주택 수요를 위한 대출 순위는 60위를 차지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지난해 1000명 중 1.64%만이 은행 담보 대출을 이용했다. 숫자상으로는 16명에 불과하다. 대중성 순위로는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구가 선두에 섰다. 이 자치구의 담보 대출은 3.17%로 올라 1000명 중 31명이 신청했다. 전반적으로 2018년과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해 볼 때 사할린주에서 담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수는 2.1%로 감소했다.

Сахалин вошел в топ-3 регионов, где дают самые большие ипотечные кредит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мкнула топ-3 рейтинга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и по размеру ипотечного кредита, который выдают рядовым потребителя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

лах эта сумма составила в среднем 2,9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ыше расположились только Москва, где банки готовы расщедиться на 4,6 миллиона, и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3,2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основе отчета Росстата опубликовало РИА «Новости». По этим данным, кром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вошли еще три регион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Уступая Чукотке (4-е место),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у (5-е место) и ЯНАО (6-е место), на седьмой строчке расположилась Якутия, где средний размер одобренной ипотеки составил 2,7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Замыкает топ-10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с цифрой 2,4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ри этом популярность ипотечных креди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еко не самая высокая, несмотря на довольно крупные суммы, одобренные банкам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нял 60-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и кредитов на жилье. Из 1000 человек за последний год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лишь 1,64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я решились на оформление ипотеки. В численном выражении это примерно 16 человек. Лидером в этом перечне стал Ямало-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Там влезть в ипотечную кабалу решаются 3,17 процента, или 31 человек из тысячи. В целом, если сравнивать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июнь 2018 и 2019 годов, то на Сахалине число желающих взять ипотеку упало на 2,1 процента.

육아 휴직 중의 사할린 여성 고아들을 위한 <사회적 보모> 팀 조직

육아 휴직 중이던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한 여성이 고아 지원 자선재단 <마음분자(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를 설립하였다. 이 여성은 병원에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방문할 자원봉사 팀을 모집하고 있다. 첫 3일간 이에 동조하는 주민들 70명이 응답했다. <사회적 보모>기획은 10월부터 시작된다.

자선 프로그램의 주창자는 두 아이의 엄마인 빅토리아 키리나가 밀바닥에서부터 이 재단을 설립했다. 병원에서 고아들 돌봄 활동에 10간 경험을 지닌 모스크바의 자원봉사자들이 빅토리아를 도우면서 모스크바 자원봉사 기획의 유형을 따라 사할린의 <사회적 보모>가 생겨났다.

(7면에 계속)

아베정권과 사할린 한인의 현황

전 소련-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공로, 원로 명예 교수 전학문 박사
현, (사) 국제문화공연교류회 고문

(전호의 계속)

가혹한 노동조건 아래서 혹사를 당한 사할린 강제 징용 노임미지급금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기본협정으로 해결됐다.', '개인의 우편저금 등 재산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체결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등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핑계로 전범보상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타카기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몇 번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좋은 삶과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한 일본계 미국인과 일본 이민자 12만 명은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당시 전시전주국(戰時轉住局)에 의해 마을에서 떨어진 사막지대나 황무지에 설립한 '전시전주소(戰時轉住所)'라는 전 미국 10개소의 강제수용소에 순차적으로 이주시켜 종전 때까지 억류되었다. 그들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일본공군의 기습공격이 성공했을 때 "진주만 승리 만세!"라고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45년이 지난 1990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강제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던 일본계 생존자 약 6만 명에게 각각 사과의 편지와 함께 각각 2만 달러의 수표를 전달했다. 그 후 캐나다에서도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일본계 생존자 약 1만4천 명에게도 미국과 거의 비슷한 사죄와 보상이 이뤄졌다.

종전 5년이 지난 1950년에 전후 폐허 복구공사 중이던 서독은 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연방원호법을 제정하여 전쟁 피해자라면 군인, 민간의 신분과 국적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호하였으며(援護: 돕고 보살피 줌), 또한 1953년에 피해자들을 위한 연방보상법도 제정하였다.

1951년 서독의 아테나워 수상은 '독일 민족으로서 유대인에게 대한 범죄는 말로 표현할 수없이 끝없는 정도의 범죄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범죄에 대하여 도덕적, 물질적 보상을 의무화했다.'고 발표하였다.

1970년 12월 7일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를 찾아 나치 독일에 학살된 유대인 위령비 앞에서 겨울비가 오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치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깊은 사죄를 표명했다. 메르켈 총리도 역시 2009년 폴란드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70년 기념식에서 거듭 무릎을 꿇고 유럽인들에게 사죄했다. 이것은 독일의 반성과 사죄를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유명한 장면으로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독일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된다고 한다.

1960년 "나치 피해 포괄보상협정"을 체결한 후 추가 배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1981년에 "독일, 프랑스 이해 증진재단출연조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에는 "기억·책임·미래재단"을 설립하였다. 2012년에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80주년을 맞아 독일에서는 나치정권 탄생을 반성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대대적인 <사죄의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행사에서 세계 홀로코스트 기념일과 아돌프 히틀러의 권력 장악 80

년에 즈음해 독일의 나치 범죄에 대한 책임과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끊임없는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2012년 11월 15일에 매년 진행되는 "유대인의 배상문제회의"에서 독일은 구 공산권 국가에 거주함으로써 배상에서 제외됐던 홀로코스트 희생자 8만 명에게 배상으로 3억 2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여 1952년에 체결한 홀로코스트 희생자에게 관한 배상 프로그램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의 책임을 인정하고 주변국에 대한 부단한 사죄와 배상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독일의 솔직한 반성은 주변국과의 대립은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과 더불어 적극적인 반성의 자세는 오늘날 독일이 유럽연합을 이끄는 중심국으로 인정된 것과 연관된다.

일본은 한반도와 중국의 침탈 과정에서 을미사변, 관동대학살, 만주사변, 난징(南京) 대학살, 731부대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지만 아직도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숨기려고만 한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오만한 태도는 피해 당사국들에서 배신감과 분노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당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같은 전범 국가인 독일이 오늘날 메르켈 총리에 이르기까지 전후 유럽의 진정한 역사 화해와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고 독일과 일본이 현재와 같은 극명한 차이의 이유는 독일이 전후에 제대로 전범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양심이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었으며 일본의 전후의 처리보다 더욱 관용적이었던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후 룩셈부르크에서 이스라엘과 협정을 체결하여 30억 마르크를 지불하였으며, 그 밖에 유대인 대독일 피해 보상 청구회에 4억5천만 마르크를 지불했다는 발표도 있다. 한편 서유럽 12개 국가의 나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협정을 잇달아 체결하여 총 10억 마르크를 지불하였고,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외에도 기업체로 강제 연행된 노동자들에게도 보상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1973년 화루벤회사등 5개의 대규모 회사가 희생자 1만 5천 명에게 총 5천만 마르크 이상을 지불하는데 그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470억 원이 된다.

위의 정보는 일본에서 신문, 출판물, TV 등 대중 미디어에 널리, 그리고 자세하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 시민들도 모를 리가 없다.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무라야마 담화의 전문을 요약하면 "오늘날의 일본은 평화롭고 강성해졌지만 과거의 잘못을 두 번 되풀이 하지 않도록 젊은 세대에 전쟁의 비참함을 알리고,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평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정책의 잘못에 의해 일본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의 주민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반성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내용이다.

(계속)

사할린 코리안을 꾸준히 찾아온 일본 활동가



이미 10년째 사할린 동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이 사할린을 찾았다. <사할린에 남겨진 코리안을 찾는 여행> 프로그램은 일본 활동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올해도 사할린을 찾아온 야마토 야스히고(대표단 단장) 공익재단법인코베학생청년센터, 일본 음악진흥회 강사, 고니시 가즈하루(전국 외국인교류연구협의회의), 사할린을 처음 방문한 디니 도시미즈(전국외국인교류연구협의회의, 다문화공생포럼

나라), 요코가와 오사무(학교법인간세이학원), 왕 사키(주부), 윤조자(복지법인세이큐샤), 권향숙(조치대학 교원)은 포자르스코에 27인 학살추모비, 홈스크 오지제지마오카공정터, 홈스크지역박물관,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항구·역사향토박물관, 비코브(나이부찌)탄광터 등 현장 등을 방문했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야 사장 등 한인 사회활동가들과 만나서 서로를 소개하고 사할린에 오게 된 동기를 밝히고 의논했다. 또한 이들은 6일 저녁에 한인문화센터에 있는 <60+>클럽의 즐거운 모임에도 참관했다. 확실한 방문 목적과 활동의 방향은 무엇인지 아직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할린 한인들을 향한 일본 활동가들은 꾸준히 사할린을 찾고 있다.

(본사 기자)

김진석 사진작가, 고려인과 사할린동포들의 지금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지난 11일(수) 한국의 유명한 김진석 사진작가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40대 중반의 김 작가는 <말>지, <오마이뉴스>등등 언론 매체들의 기자, 사진기자로, 국회 <여의도 통신> 편집장으로, 최근 2년은 정부 전속 사진사(청와대 직원)등을 역임했다. 많은 사진집도 발행하고 사진에 관한 책도 출간했다. 국내에서 사진에 대한 많은 강의도 하고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사할린 방문 첫날 김진석 작가는 한인문화센터를 찾아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회장과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과 사할린 동포 이야기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같은 날 새고려신문사를 찾은 그는 본지 연혁도 알아보고 사할린 방문 목적을 밝혔다.

청와대를 그만두고 올해 2월에는 그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한다. <고려인의 길>이란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CIS 독립국가연합의 고려인들과 한인들의 지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전시하는 것이다. 아픈 과거사보다 현재 잘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그가 2016년에 카자흐스탄에서 두 달간 고려인들을 카메라에 포착하고 전시한 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때 고려인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올해 2월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기차 타고 알마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모스크바로, 조지아, 아레즈바이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에스토니아, 그리고 다시 러시아 모스크바 가서 로스토브-나-도누를 방문했다.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블라디



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 크라시노 등등 다니며 이번에 사할린을 찾았다. 16일 사할린 취재 일정을 마친 후, 김 작가는 캄차트카, 블라디보스토크 등 10월 초에는 다시 사할린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여기에서 10일정도 취재한 후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고려인들과 사할린 한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사진들로 한국내에서 전시를 열고 내년 말에는 과리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사진전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석 사진작가는 "지금 사할린 한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있으며 그 직업 속에서 느끼는 고민이 뭐고, 아니면 궁지가 뭔지, 이런 지금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할린에서 추석 지내는 모습도 찍고 싶으며 이예식 사진기자, 조성용 화백 등등 문화예술계 동포들도 취재하고 싶다고 했다.

이 프로젝트를 실행한 지 거의 200일이 된 작가는 필자에게 그동안 다녀온 여러 곳에 살고 있는 지인들의 안부도 전했다.

(배순신 기자)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пасская башня” — оркестры из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С 23 августа по 1 сентября в Москве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проходи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военно-музык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Спасская башня», в котор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ллективы из 12-ти стран. В их числе оркестры из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й вниманию материал **Марии Ким** из Ростова-на-Дону.

Хотела сделать репортаж о фестивале “Спасская башня” и участии в нем оркестров из КНДР и РК в другом формате. Описать свои эмоции и ощущения от встречи с Севером и Югом! А это бы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лнительно.

Многие зрители н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даже не задумывались над этим вопросом, и смотрели на их выступление, так же как на выступление, например, оркестров из Египта, Белоруссии, Италии и т.д. В общем, все, кто не в корейской теме, получали просто эстетическ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и все! Я же очень переживала, как все пройдет и как все это будет выглядеть со стороны. В общем, наслаждаться мне мешали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НДР и РК.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понимаю, почему РК выбрала такую форму участия и почему организаторы фестиваля допустили это? Это конкурс ВОЕННЫХ оркестров, а не фольклорный фестиваль.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редставляла музыкальная группа “Хан-Нури”. Выступили прекрасно,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ысокий, хоть и заявляют себя как студенты и выпускники творческого вуза,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кусств. Тогда не понятно, почему они попали на конкурс ВОЕННЫХ оркестров. Ведь это совсем другая специфика. Ответ на этот вопрос наверное есть, но он в недрах МИДа,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де-то еще в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их недрах”.

— Ну да ладно!

Выступили хорошо, Достоинно представили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национ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Оно еще из тех времен, когда Севера и Юга не было. Тем более радостно, что оркестр из КНДР выступил прекрасно, просто замечательно! Ник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не хочется обижать, но раз уж это конкурс, и присуждаются места, т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он выступил лучше многих! А уж лучше победителя — оркестра из КНР, это точно! Я по своей журналистской привычке, после концерта спрашивала мнение у выходящих зрителей. Обычно называли три-четыре понравившихся коллектива, и среди них из КНДР. Если сразу не называли, то после навязывающего вопроса “А как Вам оркестр из Кореи?”, то ответ был всегда положительный. Мои респонденты отмечали, что что-то не заметно, что они задавлены тоталитаризмом, голодом и нищетой! И еще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их встречали, а тем более провожали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с немного большей теплотой, чем оста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Может мне это показалось, ведь каждый видит то, что он хочет видеть! В общем, объединив мнение о выступлении на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военных оркест-

ров “Спасская башня” в Москве обоих 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хочу сказать — “МОЛОДЦЫ КОРЕЙЦЫ”!!!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чальник оркестра — народный деятель искусств, старший полковник Ли Ын Сик.

Дирижер оркестра — Сын Сон Иль.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НДР ведёт свою историю от оркестра военного училища Пхеньяна, который был создан 23 февраля 1946 года. В 1954 году он был преобразован в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ороны, в 1972 году — в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В 1974 году последовало еще одно изменение: оркестр перешёл в подчин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Главнокомандования. А в июле 1998 года оркестр снова стал Военным оркестром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НДР.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ллектив обеспечивает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главных внутренних и внешн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его репертуаре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придаёт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песням особого стиля, который называется «тхэджун каё». Они выражают непобедимый дух и мощь героиче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ореи. Становление этого песенного жанра связано с именам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НДР Ким Ир Сена и Ким Чен Ира, а также композитора Ким Вон Гюна, написавшего в 1946 году музыку к «Песне о полководце Ким Ир Сене».

Многие участники оркестра являются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российской школы духовой музыки, которая высоко ценится в КНДР. Обучали их российски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стране по контракту.

В 2012 году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НДР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Перв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оенно-музыкальном фестивале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Амурские волны» в Хабаровске.

В 2015 году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КНДР во второй раз стал участником фестиваля «Амурские волны».

На Фестивале «Спасская башня» оркестр выступил впервые.

Музыкальная группа «Хан-нури»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 Ким Вон Мин

В состав музыкальной группы «Хан-нури»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Единый мир») входят студенты и выпускники отделения народн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кусств, который был открыт в 1992 году в Сеуле. Группа является продолжателем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традиций, которые включают в себя та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как пхунмуль, тальчум, мусок, намсадан-нори и другие. Поясним, что это за традиции.

Пхунмуль — это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 танцами и песнями под барабаны.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но устраивалось на сельских праздниках и использовалось в шаманских ритуалах. Главный элемент пхунмуля — игра на барабанах разной формы, иногда компанию им составляют духо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Тальчум —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ая сатира на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й класс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актёрами масок.

Мусок — шаманские обряды.

Намсадан-нори — улич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а злобу дня, в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зные виды искусства: акробатика, кукольный театр, танцы, пантомима, хождение по канату.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обеспечивают барабаны. Актёры постоянно шутят и отпускают остроумные реплики в адрес правящего класса. Традиция намсадан-нори включена в список нематер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На основе этой традиции возник современ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стиль намсадан.



Начиная с 1998 года группа «Хан-нури» ведёт актив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о популяризации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искусства. С 1999-го по 2010 год он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13 концерт-конференциях в Корею, в 2003 году побывал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где выступила в рамках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В 2005 году коллектив был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президента на музы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Всемирное самульнори», а 2008 году — Гран-при на крупнейшем корейском музы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Фото Марии Ким

Сахалинец Константин Сек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урнире по шахматам



В венгерском городе Балатонель завершил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урнир по шахматам.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были 10 шахматистов из Венгрии, Индии, Молдовы и России (среди них — тр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россмейстера и оди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стер). Они сыграли по круговой систем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едставлял рейтинг-лидер сахалинских шахматистов Константин С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 В первых трех турах я набрал всего лишь пол-очка, проиграв две партии. Хотя, по позициям должен был брать 2 очка. Сказывалось отсутств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опыта и волнение, также переоценка соперников. В четвёртом туре моим соперником был мастер ФИДЕ из Венгрии Борхи Марсель. Терять мне особо было нечего, и я начал играть более раскованно. В итоге выиграл прямой атакой на короля. После этого мне удалось выиграть еще четыре партии. В том числе, дву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россмейстеров. К сожалению последнюю партию я проиграл. В принципе, она ничего не решала. Мне просто хотелось выиграть, но где-то расслабился и пропустил удар, — рассказывает Константин Сек.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ахалинский шахматист набрал 5,5 очка из 9 возможных. Это позволило ему разделить 2-3 место.

— Выполнил норму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астера. Считаю, что сыграл нормально для первого раза. Конечно, хотел выполнить норму гроссмейстера. Буду надеяться, что получится это сделать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 подвел итог своего выступления Константин Се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осква окажет содейств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нвестициям в экономик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Москва окажет содействие южнокорейским инвестициям в экономику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ошлую пятниц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России,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5 сентябр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встречи с вице-премьером, министр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Хон Нам Ги.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меченные на 24 сентября в Москв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консультации оказались результативными. Хон Нам Ги предложил создать совместно с Россией круп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фонд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ключевых промышл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омплектующих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В тот же ден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вице-премьер встретился с вице-премьером Китая Ху Чуньхуа, заместителе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Вьетнама Чин Динь Зунгом и вице-премьером КНДР Ли Рён Намом.

КНДР запустила два неопознанных снаряда в сторону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Утром 10 сентября КНДР запустила два неопознанных снаряда малой дальност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По данным Объединённого комитета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снаряды были выпущены в 6:53 и 7:12 утра из района города Кэчхона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Намдо. Дальность их полёта составила 330 км. Это десятый по счёту запуск с начала года. Совет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К выразил «серьёзную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по поводу последнего запуск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нарядов. Его экстренное заседание состоялось во вторник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Чон Ый Ёна. Участники заседания рассмотрели также общие услов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ят за ситуацией, сохраняя готовность к возможным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запускам.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Пхеньян провёл очередную демонстрацию силы сразу после того, как озвучил для США послание о готовности к диалогу. По мнению ряда экспертов, это может говорить о желании Пхеньяна внести в повестку контактов с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ой вопрос об обеспечении соб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К меняется культура проведения выходных в праздник Чхусок

Семь из каждых десяти одиноких мужчин и незамужних женщин в РК не планируют посещать малую родину в период выходных по случаю праздника осеннего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На это указы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проведённого брачной компанией DUO Wedding. При этом 75,6% из них отправятся на отдых. В качестве причин отказа от традиционной поездки на малую родину к родственникам указывается желание уделить время для себя, возможность избежать семейных разговоров, стремление провести время с близким человеком. Большая часть респондентов, желающи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провести выходные, намерены сделать это в гостинице. 22,4% выбрали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оездку внутри страны, а 17,3% - поездку за рубеж.

Сеул озвучит проблемы предстоящих Олимпиады и Паралимпиады в Токио

РК намерена обратиться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комитету и оргкомитету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Токио 2020 года с просьбой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план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Японией флага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Угильги». Этот флаг в странах Азии воспринимается как символ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Япония представила дизайн медалей для паралимпийцев, изображение на которых напоминает «Угильги». Кроме того, в Токио решили разрешить своей сборной выходить на открытие и закрытие Олимпиады с этим флагом. Делегация РК озвучит мнени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на семинаре глав спортивных сборных в Токио,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с 8 по 12 сентябр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KBS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Чон Хе Чжа. По её словам, она намерена оспорить меры Японии по «Угильги», учитывая, что Паралимпиада - это политически нейтраль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Кроме того, Чон Хе Чжа планирует потребовать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размещения на сайте предстоящей Паралимпиады информации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островов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RKI)

Ю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хорошо приня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Пять дней провели в Южной Корее юные островные музыканты. За это время они дали один концерт. Увидеть игру сводн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 котором на сцену вышли сахалинские и корейские музыканты, собралось 1200 зрителей.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отметила, что за все врем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наибольшая аудитория, которую за один раз удалось собрать сводному оркестру.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организацией этого крупн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бытия занимался Сахалинский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й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СОНМЦ).

"Такие поездки проходят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с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два раза в год,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СОНМЦ Елена Манойленко. — Один раз дети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езжают к нам на Сахалин, второй раз мы едем к ним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Для детей, безусловно,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сво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мастерства. Увидеть, в каких условиях занимаются их сверстники".

Открывала концерт сахалинский дирижер Виктория Юрманова. Под ее руководством симфонический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фрагмент из увертюры Бизе к опере "Кармен", увертюру Россини "Севильский цирюльник", Симфонию Дворжака "Из Нового света" и попури на темы русских народных песен. Местная публика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встречала каждую композицию продолжительными овациями, но наиболее тепло отреагировала именно на попури.

"Так на наши выступления не реагировали ни в одном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где нам до этого доводилось выступать, — говорит сахалинский дирижер Виктория Юрманова. — Публика с благодарностью отнеслась к выступлению детского оркестра. Конечно, на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изводят впечатление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мелодии. Поэтому мы стараемся в каждую зарубежную программу вставлять узнаваемые композиции. В этот раз пошли даже на небольшой эксперимент. В



конце дети встали и спели отрывок из "Калинки", чем произвели неизгладим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зрителей".

Во второй части концерта оркестром руководил один из лучших корейских дирижеров Гым Нам Се. Четыре года назад он уже работал со сводным коллективом. Дирижировал в Невельск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этот раз он выбрал для выступления части из симфоний Чайковского, Бетховена, Вивальди. У педагогов были опасения, что дети не сумеют за столь короткое время разучить столь сложную программу. Ведь готовились к концерту они большую часть времени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Вместе оркестр собрался лишь за два дня до события. Однако юные музыканты и их педагоги подошли к подготовительному процессу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И поставленную перед ними задачу выполнили.

Концерт длился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часов. Его транслировали в прямом эфире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оэтому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исполнении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вживую 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не только в Сеуле и Южной Корее, но и на Сахалине, сообщает СОНМЦ.

Материковские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азличия и сходства

Ким Герман,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 32, 34)

Специально командированные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заняли на Сахалине руководящие должност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силовых органах и во всех других сферах. Статус прибывши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 намного выше, чем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казавшихся под их началом. К этому времени относится появление слова «кхынтанбегги», так презрительно сахалинцы называли «ма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плоть до конца 1970 годов довольно крупной оставалась доля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просторечии их называли «бэгэшниками»).

В 1985 году из 31.664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0.522 человек имели советское гражданство, 1.259 являлись гражданами КНДР, а 9.883 были лицами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В 2018 по данным Росстата численность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е составила 26, 4 тыс. человек и доля лиц без гражданства РФ среди них свелась почти к нулю.

Труд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рей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на рус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одолжили свое привычное крестьянское занятие, приспособившись к местным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им условиям. П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 при возможности они занимались также иными видами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сле депортации корейцы продолжили занятие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но уже в новых условиях колхоз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Казахстане и Средней Азии советские корейцы зарекомендовали себя отменными земледельцами, получавшими рекордные урожаи зерновых, прежде всего риса; овощных, бахчевых и техн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таких как хлопок, сахарная свекла, кукуруза и кенаф.

В связи с интенсивной сельско-городской миграцией в 1960-х годах, доля аграрников среди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стала резко сокращаться. К 1970-80 годам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вшие в городской среде, трудились в разных сферах производства, оказания услуг, в образовании, науке, культуре и т.д.

В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советской эпохи удельный вес корейцев, занятых физическим трудом сокращался, а число работников умственного труда увеличивалось. Однако следует упомянуть, что немало ма-

териковских корейцев-горожан, имевших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должности на сво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работе, практиковали в 1960-90 гг. выше упомянутое кобонди. К закату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образцов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группу», достигшую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и результатов во всех сферах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Массовое пере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в японскую префектуру Карафуто было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о с работой на шахтах, а также на фабриках и заводах японского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То есть,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отличие от материковских соплеменников, трудились изначально в фабрично-заводском, горнодобывающем и строительны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Но они были в своей основной массе также, как и первые переселенцы в русское Приморье, выходцами из малограмотного обезземеленного крестьянства. Поэтому, когда наступили тяжелые и голодные послевоенные год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занялись огородничеством.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го кризиса на острове советские власти разрешили корейцам торговать на рынках выращенными на огородах овощам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ак для материковских, так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занятие традиционным крестьянским трудом составило основу для материального благополуч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имиджа трудолюбивых людей, дало опыт и навы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легчившие им вхож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ериода.

Этнокультурные процессы

Отметим сразу, что изначально у материковских 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илу происхождения из разных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регионов этнической родины, имелись различия в бытовой культуре. На этнокультурное развитие корейцев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оказали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ассимиляторская политика японских колони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риродно-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реда, абсолютно доминирование окружающего рус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ая близость с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и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ССР и КНДР.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держал победу на выборах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ои голоса за него отдали 56,15 процента или почти 79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выборах. Средняя явка избирателей по региону составила 37,37 процента.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озвучили сегодня на итоговом брифинге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е участки и реализовали свое право на свободное волеизъявление. И тех, кто за меня проголосовал, и тех, кто выбрал другого кандидата. Я уважаю выбор каждого! — обратился к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ласти, впереди — ответственная и серьезная работа в команде.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программы действий будут учтены идеи и усилия всех партий,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здание и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ов.

— За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я посетил все райо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лышал людей. Для меня было важно понять проблемы, с которыми регулярно сталкиваются жители, найти пути решения. Считаю справедливым, ч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здесь работают, создают семьи, рожают детей должны жить комфортно: в хороших домах с благоустроенными улицами и дорогами,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легко и доступно добраться к месту отдыха, с созданными условиями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образования. Жизнь на островах должна быть такой, чтобы у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не возникало желания уехать. Над этим будем работать.

В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что выборы на островах прошли честно и прозрачно. Впервы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единый день голосования открылся центр общественного наблюдения, который разместил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К работе центра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общественные наблюдатели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Они могли фиксировать звонки, сообщения в Интернете о ходе голосования, а после направлять информацию в избирательную комисс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Также на участках работали 219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помимо этого на каждом участке были наблюдатели от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и кандидатов.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видеонаблюдение. Серьезных жалоб на проведение выборов не зафиксировано.

Помимо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единый день голосования выбирали депутатов Собраний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 Ноглик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а также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сетители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съели почти пять тысяч бутербродов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Традиционны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брал сотни горожан. Он развернул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возле Дома Торговли в воскресенье 8 сентября.

Здесь открыли множество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лощадок для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с аттракционами, фотозонами, аквагримом, чеканкой монет с логотипом фестиваля, различны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и конкурсами. На сцене выступили городск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 с танцевальными и песенными номерами, а также барабанщики «Catchers Groove»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Традиционно для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приготовили гигантский бутерброд с красной икрой, состоящий из множества кусочков багета с островным деликатесом. Попробовать необычное угощение могли все желающие.

— Фестиваль «Остров-Рыба» проходит уже пятый год, и его всегда посещают множество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Я вас приветствую, желаю хорошего настроения и наслаждайтесь сегодняшним днем, — обратился к собравшимся мэр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ергей Надсадин.

Почетными гостями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бренд-шеф ресторана «Мясо&Рыба» Сергей Лобачев и презид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й гильдии шеф-поваров Александр Филин.

— С праздником,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Нас пригласили сюда на помощь. Но за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я убедился, что она вам не нужна — вы сами кому хотите поможете. Спасибо вам, спасибо за все, —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 мнением о фестивале президент национальной гильдии шеф-поваров.

Совместно с островными кулинарами почетные гости фестиваля приготовили на полевой кухне «Сахалинский морской сюрприз» — суп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дарами моря.

Такж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овали ярмарку. На ней представили продукцию более 30 сахалинск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рыб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рабы, гребешки, креветки, мидии — каждый смог найти себе угощение по вкусу.

— У меня отл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Мы приехали купить рыбки свежей — и взяли кеты. Попробовали бутерброд с икрой и другие угощения. В целом, очень рады, организация праздника на высоте, — отметила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леся Младова.

Все желающие на фестивале смогли пообедать в зоне фудкорта — рыбным рулетом, миксом с семгой, цезарем с анчоусами, шашлыком из горбуши, биточками из морепродуктов, фаршированным кальмаром и множеством других разнообразных готовых блюд.

В Тымовском районе построили два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х пункта

Общая площадь каждого медпункта — 15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Современные ФАПы появились в поселках Зональное и Красная Тым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добные медучреждения появятся и в друг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однократно отмечал, что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медучреждений — один из приоритетов работы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Это касается, как ведущих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ак и сельских ФАПов и амбулаторий. Каждый житель области должен ощутить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 считает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ный врач Тымов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Светлана Темников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в селе Красная Тымь давно ждали нового ФАПа.

— Мы конечно старались поддерживать состояние старого здания, но проводить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там не было смысла, из-за ветхости. А сейчас мы получили современный объект, обновили мебель, оснаще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врач.

Первые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ли оценить планировку нового объекта: в нем есть кабинет фельдшера, процедурная, место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аптеки. Санузел оборудован поручнями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В здании есть и 2-х комнатная квартира для фельдшера, установлены пожарная и охранная сигнализации.

— В ближайшие пять лет в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65 медицинских объектов. По поручению руководства региона усилена работа и по капитальным ремонтам, в этом году на эти цели выделено 1,2 млрд. рублей,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принявший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ФАПа в селе Красная Тым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введут еще две новостройки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районе: во Мгачи вскоре откроется современная амбулатория, в Хоз —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й пункт. А в селе Стародубское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откроется новое здание поселкового медучреждения.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возводят здания ещё для четырёх ФАПов. Работы ведутся в сёлах Восточ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лхозное (Невельский район), Совхозное (Холмский район), Песчанское (Анивский район).

Масштаб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островн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и иницииров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его на переоснащение остров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выделили 2,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Уже было приобретено 225 единиц новейшей техники. На капремонт медучреждений в этом году было выделено 1,2 млрд рублей, что позволило обновить внешний вид более 20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Кроме того, в 2019-м выросли зарплаты врачей и среднего медперсонала в поликлиниках. Вдвое увеличен целевой набор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медицинские вузы.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пециалистов выплачиваются самые высокие подъемные в стране — от 1,45 до 2,6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айо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Медикам компенсируют до 25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аренду квартиры. В ближайшие 5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65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 Троицком открылся новый стадион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ввел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тадион — возможность тренироваться получили юные футболисты, лыжники, гимнасты. Рядом готов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ольшой лыжной базы. В центре села обустроивается спортивный кластер, где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анивчане и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соревнова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 люди активные и спортивные. И у всех желающих должна быть возможность заниматься физкультурой, приобщаться к здоровому образу жизни. Для развития любительского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порта мы приняли программ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олее 60 объ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 сказа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Юные и взрослые спортсмены из Троицкого получили современный стадион площадью 45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На футбольном поле — искусственное покрытие, есть удобные дорожки для легкоатлетов, площадка для воркаута, трибуны для болельщиков. В здании размес-

тились две большие раздевалки, тренерские комнаты.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обустроить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и открыть отделе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и. В селе сейчас идет активно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запрос на такую спортивную секцию велик среди родителей девочек.

Юных троичских футболистов воспитывает тренер высшей категории Сергей Курнаков. Под его руководством ребята стали бронзовыми призерами первенства области по футболу. Также на новом стадионе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социальные зарядки, которые уже завоевали популярность у жителей Анивы.

Нового стадиона жители Троицкого ждали больше четырех лет. Промедление возникло из-за проблем с подрядчиком: объект возвели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но сдать не смогли по причине несоответствия проекту. На расторжение договора, поиск нового подрядчика, выполнение необходимых работ потребовалось время. А ребятам приходилось тренироваться в школьном спортзале и на поле для мини-футбола.

— Стадион нам был очень нужен, — поделилась тренер-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о лыжным гонкам Кристина Зыкова. — Теперь наши ребята-лыжники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в хороших условиях и круглый год. В теплое время на стадионе удобно проводить тренировки на лыжероллерах. Дети будут отрабатывать технику и показывать 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Рядом с новым стадионом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большую лыжную базу. Сегодня проходит обоснование инвестиций, завершить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в 2021 году.

— Сейчас у нас есть небольшая лыжная база. Новый объект будет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м. Мы хотим открыть тир для отделения биатлона. Также проек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борцовский и гимнастический зал,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где с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все желающие жители Троицкого. В здании будут раздевалки с душевыми, прокат лыжного инвентаря, буфет,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анивск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ы Михаил Шамсутдинов.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лав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активизировалась работа по развитию спортив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островах.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возведение таких крупных объектов, как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манеж и центр бокса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рытый корт в Ногликах, универсальный тренировочный комплекс с ледовой ареной в Макаро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МТС будут вместе развивать цифровую экономику

Соглашени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у властя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крупнейшим отечественным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м оператором заключено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и вице-президент по цифровым бизнес-решениям ПАО «МТС» Валерий Шоржин.

Соглашени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цифровизацию экономики, город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по цифровым компетенциям.

— Соглашение полностью отвечает задачам по развитию цифровой сред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бозначенн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Алексей Белик. —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невозможно без цифровизации социальной и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недрение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ервисов является стимулом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что самое важное,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на островах.

МТС стал первым оператором на острове, обеспечившим значим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общей протяженностью более 300 километров полным покрытием сетей сотовой связи. В ближайшие два года работа по полному охвату трасс будет завершена.

— Сегодня, когда в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на острове построена, мы готовы внедрять цифровые решения на базе нашей сети, чтобы жители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менять соврем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Уверен, наш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в регион, а также росту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и комфорта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Шоржин.

Ране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говорился с компаниями МТС и Мегафон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 ключев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артериях. Реализация этих решений позволит до конца 2020 года обеспечить полным покрытием тысячу километров островных дорог устойчивой сотовой связью, не зависящей от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에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진행

(1면의 계속)

제 2 선거구에서는 현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노워알렉산드롭스크 구역장 세르게이 자모타예브(870 득표)가 당선되었다.

제 3선거구에서도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현 시의원인 장 예브게니가 937표로 당선되었다.

선거 한 달 전 격렬한 경쟁이 예상되었던 지역인 제 4 선거구에서는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 현 시의원인 세르게이 두보브(찬표 608)에게 승리가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1421표 중 964표를 득표한 크세니야 오가르코와(<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는 제5선거구에서 선출되었고 제 6선거구에서는 467표를 받은 <러시아 정의당>의 알렉산드르 아니스트라토브가 당선되었다.

제 7선거구에서는 사회 활동가인 마이야 키틀로와(703표, 무소속), 제 8선거구에서는 <러시아 정의당> 소속인 세르게이 석 (447득표)이 당선되

었다. 제 9선거구에서는 다소 당선에 예측되었던 현 의원이자, 전 시 의장인 엘레나 스톨라로와(681득표), 제 10선거구에서는 이반 카르다쉬(455 득표)가 당선되었다.

제 11선거구에서는 이고리 로그윈(무소속, 929 득표), 제 12선거구에서는 이반 부타코브(무소속, 688득표)가 당선되었고 제 13선거구에서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인 세르게이 드미트리예브(580득표)가 당선되었다.

제 14선거구에서는 스웨틀라나 스웨즈가 674표 득표로 승리하였고, 제 15선거구에서는 <예지나야 러시아당>의 스웨틀라나 체르노와가 443표로 당선 되었다.

제 16선거구는 현재 시의장인 블라디미르 자이체브가 609득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재선 되었고, 제 17선거구에서는 새로이 정치권에 등장한 무소속으로 출마한 블라디슬랍 글루호브가 72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제 18선거구에서는 수산나 아드로

와(러시아 공산당 소속, 797득표), 제 19선거구에서는 갈리나 포도이니코와(러시아 공산당 소속, 734 득표), 제 20선거구에서는 올레그 블루텐코 현 시의원, 21 선거구에서는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인 루슬란 텐(정)이 당선되었다.

제 22선거구에서는 <예지나야 러시아>당 소속인 세르게이 샤로브 현 시의원, 제23선거구에서는 현 시의회 부의장인 니콜라이 아르체멘코, 제24 선거구에서는 로만 웨제네예브(무소속)가 당선되었다.

제25선거구의 타치야나 루다코와(<예지나야 러시아당>)가 1039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1000표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루다코와 한 사람뿐이다.

이렇게 하여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베젤스크 의회에는 이번에 한인 동포 2명 (박 블라디미르, 강 제니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두마에는 한인 동포 2명(석 세르게이, 장 옌게니)가 당선되었다. 비례 투표 당선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한인 동포 의원 수는 변경될 여지가 남아 있다.

(본사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헛구역질을 하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구역질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구토를 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들어간 것을 뱉어내는 것이지요. 당연한 현상일 겁니다. 들어가서 머무르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든 간에 몸속에 나쁜 것을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구역질이라는 말은 구역이라는 말에 질이 붙은 겁니다. 좋지 않다는 생각에 '질'을 붙인 것이겠죠. 구역(嘔逆)은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구토(嘔吐)도 비슷한 한자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吐)하다'라는 말도 한자어입니다. 순우리말로는 '게우다'가 있습니다. '게워 내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런 말은 전부 몸속에 잘못 들어간 것을 도로 밖으로 꺼내는 기본 나쁜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역질 중에는 헛구역질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헛구역질은 나쁜 것이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상상만으로 이루지는 현상입니다. 상상만 해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지요. 우리 몸은 상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나 걱정이 있으면 위장이 기능을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고 체(滯)하게 됩니다. 몸속에 괴로움이 머무릅니다. 그런데 체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몸이 헛구역질로 아예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헛구역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은 아마 임신으로 입덧을 하는 경우일 겁니다. 임신을 하면 모두 입덧을 하거나, 헛구역질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김치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하는 장면을 임신의 징표로 보이곤 합니다. 입덧을 할 때 헛구역질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아이의 몸과 엄마의 몸이 맞지 않아서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평상시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기도 할 겁니다. 평생 안 먹던 음식을 임신 중에만 먹었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그 음식이 아가의 아버가 좋아하던 음식일 수도 있고, 아이가 나중에 좋아할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헛구역질을 하겠지만 아무튼 헛구역질은 무척 괴롭습니다. 위액이 올라와 기분 나쁜 신맛이 입에 한 가득이기도 합니다. 눈이 충혈 되기도 하고 모습도 초췌해 집니다. 저는 매우 민감한 편이어서 걱정이 있으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강의나 중요한 모임을 앞두고는 식사를 자제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증상이 심각해져서 아침부터 헛구역질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별개지기도 하니 부끄럽기도 합니다. 음식뿐 아니라 원하지 않은 일도 내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듯합니다. 헛구역질은 내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헛구역질을 하는 저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헛구역질은 제가 하기 싫은 일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걱정하는 일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지가 몸이 미리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스스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스스로에게 식사를 하지 말라고 오히려 충고해 줍니다. 괜히 먹어서 탈이 날 수 있으니까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나에게 이롭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모두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잘 살아가게 돕는 일입니다. 내 몸을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에서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현재의 내 상태가 어떤지 귀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나는 주 아동병원의 지도자들에게 이 기획을 제시하여 호응을 얻고 협의한 후 필요한 문서들에 조인했다. 자원봉사자들은 10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봉사자들의 수는 아직 정확하지 않으나 첫 3일간 나의 제안에 70명 이상이 응답해주었다. 이중 20명은 11월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남은 50명 중 시민 20명만이 최종 목록에 등록되었다." 라고 빅토리아 키리나가 설명했다. 이 활동에 돌입하기에 앞서 의료심의회를 진행해 의료 전문가들은 자원봉사자들의 심리 상태를 측정하고 사할린주 국립대와 <극복>재활센터의 교육자들이 교육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빅토리아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교육 심리 교사로서 근무해왔다. 자원봉사자들은 일주일에 두 번 아동병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때로는 산부인과 병원에 버려진 아이들,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버려진 아이들이 여러 요인으로 잠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간호사들을 도와 아이들과 <개발놀이>를 진행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년 소녀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보호를 선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보도>팀은 10월에 첫 환자들을 방문한다. 이 기획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전화(8-024-186-18-81(빅토리아 키리나)) 연락으로 등록할 수 있다.

Сахалинка в декрете собрала команду социальных нянь в помощь одиноким малышам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ходясь в декрете, организовал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фонд помощи одиноким малышам «Молекула сердце». Женщина собирает команду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навещать в больнице детей, оставшихся без родителей. За первые три дня отозвались уже 70 неравнодушных земляков. Старт проекту «Социальная няня» дадут в октябре.

Автор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 мама двоих детей Виктория Кирина. Она основала фонд с нуля. Женщине помогли московские благотворители, у которых имеется десятилетний опыт работы с одинокими детьми в больницах. По типу проекта столичных волонтеров и появилась сахалинская «Социальная няня».

— Я показала проект руководству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ы. Отнеслись к затее хорошо, после переговоров подписали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Волонтеры приступят к работе с 1 октября. Пока их точное количество назвать трудно. За первые три дня на мой клич отозвались более 70 человек. Но 20 из них смогу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только в ноябре, а из оставшихся 50 в окончательный список записались только около 20 горожан, — отметила Кирина.

Прежде, чем приступить к работе, команда пройдет медицинскую комиссию, специалисты определят психоэмоцион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волонтеров, а педагог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и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реодоление» проведут обучающий курс. К слову, сама Виктория по образованию учитель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до декрета работала педагогом-психологом.

Волонтеры будут посещать малышей в больнице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Детки порой попадают туда надолго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 от одних отказались в роддоме, дру-

гие попали в трудную жизненную ситуацию. Благотворители помогут медсестрам в уходе, поиграют с детьми в «развивайки».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 дадут мальчишкам и девочкам заботу и душевное тепло.

Социальные няни навещат первых пациентов в октябре. Все, кто хоче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проекту, могут записаться по номеру телефона 8-924-186-18-81 (Виктория Игоревна Кирина).

이투루프의 곰들의 서식지가 여행 명소로 자리잡다

이투루프의 곰들의 서식지가 쿠릴 섬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았다. 호기심이 많은 수십 명의 여행객들이 중심지에서 멀지 않은 숲을 찾아간다. 그곳에서 지역 생산업체의 직원들이 곰들을 위해 규칙적으로 생선머리를 풍성히 차려놓은 식탁으로 모여드는 곰들을 관람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탁은 몇 년 전에도 숲속에 생겼었다고 한다. <기드드로스트로이> 회사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생산품에서 폐기되는 생선의 머리와 내장 부분을 곰들의 먹이로 제공하는 데 이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곰들은 차려진 먹이를 찾아와 매일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다.

곧 입소문을 타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숲으로 지역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방문객들은 차려놓은 먹이를 먹는 곰들을 관찰하고 휴대폰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담았다. 몇몇 대담한 여행객은 차에서 내려 모여 있는 곰들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도 한다. 쿠릴 주민 아르쭌 파슈긴의 말에 따르면 곰들은 숲에 밤낮으로 무리지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사람이 근접해도 모른 척하고 신선한 점심식사에도 덤벼들지 않고 제공된 생선머리들이 상한 냄새를 풍기기까지 기다린다고 한다.

Медвежья столовая стала местом паломничества туристов на Итурупе

Медвежья поляна на Итурупе стала еще одной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ью курильского острова. Десятки любопытных туристов ежедневно стекаются в лес недалеко от райцентра, чтобы понаблюдать за толпой косолапых, которым регулярно накрывают богатый стол из рыбьих голов сотрудники местн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По словам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трапезная в лесу появилась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Компания «Гидрострой» реши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отходы от производства в благих целях — отдавать кучи рыбьих голов и кишок на съедение медведям. Косолапые начали навещаться в столовую стройными рядами. Ежедневно там «пасутся» от четырех до десяти особей.

Вскоре сработало сарафанное радио, и на поляну ради любопытства стали съезжаться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и туристы. Люди наблюдают за хищниками, поедающими отходы, снимают происходящее на мобильники. Самые смелые выходят из автомобилей и делают на фоне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медведей селфи.

Как рассказал житель Курильска Артем Пасюгин, косолапые кучкуются на поляне и днем и ночью. Они ведут себя неагрессивно и, кажется, вообще не замечают присутствия человека поблизости. При этом на свежий обед они не набрасываются, а ждут, пока очередная партия рыбьих голов начнет тухнуть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한국어 예비교원들이 사할린에서 실습을 시작

한국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예비교원 국외파견 사업을 시행해 2017년부터 사할린에 예비교원들을 파견한다. 사업의 목적은 한국어 예비교원에게 국외 실습 기회를 제공해 한국어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미 2년째 이 사업을 경희대학교(사업담당 박동호 교수)가 사할린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일(일) 사할린에 도착한 1차팀(예비교원 6명)과 송지연 담당연구원, 허문영·김경화 경력 교원들이 본격 사업에 나섰다.

송지연 담당연구원에 따르면 예비교원들(총 12명)은 1차(9월 - 4주간, 예비교원 6명), 2차(10월 - 4주, 6명)로 나누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나선다.

이들은 한국어 정규교육 기관인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동양김나지아와 제2김나지아 와 코르사코브시의 제2중학교와 제4중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다섯 지역 돌린스크·코르사코브·아니와·홈스크·우글레고르스크 지방 한글학교에서도 수업을 펼친다.



또한 예비교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수반과 화·목반으로 나누어 저녁에는 한국교육원 수강생 위주로 입문반 3반, 초급반 2반으로 모집해 총 65명 정도를 가르치고 있다.

경희대 측에 따르면 예비교원들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할린에 오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지원자 14명(1차 팀 7명, 2차 팀 7명)을 뽑고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사전 연수 결과로 12명만 최종 통과했다.

필자는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경력교원들에게서 알아보았다.

"굉장히 신기해 하고 반겨주시는 분위기라서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따라하시고 메모도 하시고. 한국 교육원은 대부분 성인과 중고등학생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어른들이 배우시는 데 모두 열심히 하는 분위기예요. 오늘은 제2김나지아에 가서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 두 반에서 모의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즐거워해서 저희도 좋았어요."라고 답했다.

또한 예비교원들은 사할린국립대 수업에도 참관하고 모의수업도 할 계획이다. 14일(토) 주 향토박물관 <사할린 한인>전시회 개막식 일환으로 문화 체험교실을 열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1차팀은 10월 5일에 귀국하고 2차 팀은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할린에 파견할 예정이다. 허문영·김경화 경력교원은 2달간 계속 사할린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원어민 교원들의 활동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할린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하다.

(배순신 기자)

- 광고 -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여러분,
2019년 09월 15일 오전 12:00시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회 주최/주관으로 <들놀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적극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사할린 한인 추모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록산원 농장내).

행사장까지 무료 버스로 이동 가능합니다.

무료 버스 출발지 주소: 유즈노사할린스크야거리, 71번.

무료 버스 출발 시간: 09월 15일 오전 11:00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사무국

ЕДА.САХ.КОМ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100 000 ЗАКАЗОВ
-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ЗАСТРЯЛИ В ПРОБКЕ?
ПРОСТО НЕ УСПЕЛИ ПОЕСТЬ?
Ставь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ШИЛИ ПЕРЕКУСИТЬ В ОФИСЕ?
ЛЕНЬ ГОТОВИТЬ?
Просто заходи на сайт **eda.sakh.com**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СКИДКИ И АКЦИИ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ЛЮБОЙ ВАШ ЗАКАЗ

реклама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